
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배현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33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5. 2.

발 의 자 : 배현진 · 정성국 · 김형동
고동진 · 김 건 · 김소희
우재준 · 박정하 · 김성원
박정훈 · 안상훈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은 가족의 경제적 지원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교육사다리 정책으로, 매년 약 60만건 · 2조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음.

상당수가 5학기 이상을 학자금 대출로 충당하고 있으며, 졸업 후에는 최소 1천만원 이상의 빚을 지고 사회로 첫발을 내딛게 됨. 어렵사리 취업에 성공해도, 월세와 공과금 등 높은 생활비에 치이며 학자금까지 갚아야 하는 현실에 처하는 것임.

실제 지난해 학자금 대출 체납률은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, 체납 · 연체액도 1,913억원에 달했음. 일부 청년들은 학자금 빚을 갚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는 악순환에 빠지기도 하는 실정임.

그러나 현행 제도는 실직 · 재난 · 부모 사망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상환유예가 가능해, 단순히 생계가 어려운 이유만으로는 유

예를 신청하기 어려움.

이 개정안은 어렵게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, 최대 1년간 조건 없이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‘상환 방학 제도’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18조제9항 신설).
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⑨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출 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는 채무자가 원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대출 원리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. 이 경우 납부 유예는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) ① ~ ⑧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18조(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) ① ~ ⑧ (현행과 같음) <u>⑨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출 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는 채 무자가 원하는 경우 1년의 범 위에서 대출원리금 납부를 유 예할 수 있다. 이 경우 납부 유 예는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.</u>
<u>⑨</u> (생 략)	<u>⑩</u> (현행 제9항과 같음)